인 사 말

경자년(庚子年)에 꿈꾸는 안전한 먹을거리 세상

전 향 숙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힘이 아주 센 흰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는 재물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면서도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등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 미래를 예시하고 대비하는 데 쥐만 한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들이 다양한 먹을거리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20년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2020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시행 또는 강화되는 제도로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축산물 HACCP 사전인증 · 재인증 시행,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식품안전 관련 부처에서 좀 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식(食), 즉 먹는 문제만큼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 중 하나로 다뤄져왔습니다. 최근 수행된 식품안전 관련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도 사회불안(34.5%)보다 식품불안(39.1%)을 다소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식품안전을 둘러싼 내 · 외부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원료 생산자, 식품 제조자, 유통 판매업자, 관리당국의 각종 식품안전 확보 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소비자 또한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만큼의 합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의 제고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6년 출범한 이래 산, 학, 연, 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서 발행하는 "Safe Food"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 정보를 파악하여 과학적 사실에 기인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자년에는 식품사고 없이 국내 식품산업이 보다 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만 드시는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